

信 心과 情性으로 靑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 · 탕화 · 범종 전시관
전화: 02-735-1045 / 팩스: 02-735-2344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080-023-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김관삼 / 편집인: 김광삼 / 논설위원: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주)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곧은 마음이 도량이다.
(유마경)

법회 안내

웃산 불광사 (02)359-5367
거사법회 월매 일 오전 10시30분
청년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 3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 4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1시
법안정사 (02)646-4975
가곡법회 매달 첫째 토요일 저녁 7시
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청년법회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사천원사 (02)939-3900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 4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미타사 (02)297-199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대학부법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부산 해인정사 (051)866-777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중학부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출방 영각사 (0458)37-2430
초하루법회 매월 초하루(음)
인동기도법회 매월 15일(음)
지장기도법회 매월 18일(음)
관음기도법회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부루나 포교원 (032)576-9741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30분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 11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진주 월경사 (0591)63-6411
신도법회 매월 3일 오전 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1시
합창대법회 매달 15일 오전 10시

※ 이란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총무원장에 月珠스님

개혁회의 해산... 25일 새 집행부 출범
조계종 28대 원장, 168대 146으로 당선

월주스님(59, 금산사 회주)이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월주스님은 1백68표를 얻어 1백46표를 얻은 월탄스님(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을 2표차로 물리치고 당선됐다.
이날 투표에는 재직 선거인 3백19명중 지관(해인사 주지) 일타(은혜사 주지) 진관스님이

불참, 3백16명이 참가했고 2표가 무효처리 됐다.
월주스님은 개표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한국불교를 만들어 달라는 종도들의 염원이 뒷받침돼 당선된 것 같다"고 지지해준 종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경험자인 월탄스님을 지지한 종도들의 뜻도 존중받기를 위한 것은 적극 수렴해 종단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3면)

새로 총무원장에 선출된 월주스님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지난 56년 금오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았으며 10하안거를 성취했다. 개운사·금산사 주지, 종회의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80년 4월 제 17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선출됐다가 10·27 법난으로 6개월만에 물러났다.
현재 경실련·불교인권위·광불협·한국시민단체협 등 10

여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로써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장기집권 체제를 무너뜨리고 개혁의 새지평을 연 개혁회의는 최대과제였던 종헌·종법 개정 제정과 함께 합법적인 총무원장 선출을 마무리짓고 평화적 종헌 이양을 완수하고 지난 24일 해산식을 실시, 25일 인수인계식을 가졌다.
한편 월주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하는 축하연이 21일 오후 6시 하림각에서 3백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형 사제 종단의 개혁의수와 불교종흥을 위해 총무원장에 출마한 월주스님(오른쪽)과 월탄스님은 사형사제다. 서로의 애증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존경한다는 것을 선거직전 공개 잡은 두 승과 합한 웃음으로 보여줬다. 선거 후 두스님은 깨끗한 승복과 활기찬 새출발로 경쟁자의 관계가 아닌 수형과 애증의 길을 함께 걷는 사형사제의 지리로 돌아갔다. (사진=익재관 기자)

1천 2백여 스님 산문단고 정진

전국 60여 선원서... 외국인 스님·재가불자도

불기 2538년 동안거 결제가 지난 17일 전국 선원과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이번 동안거는 조계종의 총림 4, 비구 30, 비구니 22개의 선원과 태고종 선암사 칠정선원 등 60여개의 선원에서 총 1천 2백여명의 스님이 결제했다. 이들 스님을 가운데는 조계종림과 신원사, 화계사 등의 국제선원에서 31명의 외국인 승승이 결제했다. 또한 영축총림 보살선원과 용화사 법보선원등의

재가자를 위한 선원에도 2백50여명의 신도가 결제에 임했다.
조계종 총정 월하스님은 이번 동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여기 지극한 도리가 하나 있으니 시간으로는 삼세에 통하고 공간으로는 시방을 피도다. 천마디 말로도 미할 수 없고 만번의 생각도 흠족치 않도다"며 "호르는 끓어 끓은 뜻을 알면 비로소 청산의 본래 푸름을 알리라. 굵고 굵고 가로 세로 또한 청황까지도 중생의 마

음으로 분별한 것을 벗어나지 않도다"고 했다.
이번 결제에는 전북 월명암(주지 삼일)이 처음으로 선원을 개설, 서용스님을 조실로 11명의 스님이 결제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막수암 죽림선원은 선원 중창봉사를 마치고 3년만에 다시 선원을 개원, 31명의 스님이 결제에 들어갔으며 미타사선원도 선원봉사를 마치고 15명의 스님이 결제했다.

총무원장 인준

지난 23일 원로회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해인, 해인사 방장)는 지난 23일 조계종 총무원 참사 4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월주스님을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으로 인준했다.
17명의 원로스님중 14명이 참석한 이날 원로스님들은 새 집행부에 대해 "부처님 법에 의거한 원리원칙에 입각해 종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단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원장 원산·포교원장 정락스님

- 총무부장 범하
- 기획실장 지명
- 재무부장 원우
- 문화사회부장 시현
- 호법부장 혜창



해창스님(개혁회의 교무부장)이 임명됐고 불교신문사 사장에 정후스님(종회의원)이 임명됐다.
관심을 모았던 조계사 주지 직무대리에는 원근스님이 유망됐다.
"새종단 발전 촉원" 월탄스님 '사제합설'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경선에 나왔던 월탄스님은 지난 22일 '사제의 합설'을 통해 '소승에게 뜻을 모아 각각 성원해 주신 여러분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에게 심심한 감사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번 선거결과를 크나큰 경계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뜻과 마음을 귀중하게 담아 종단의 앞날을 위해 더욱 더 수행하고 정진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종단이 불교발전과 종단중흥을 원만히 성취하기를 축원했다.

조계종 새 집행부 인선

조계종 제 28대 집행부가 지난 24일 확정 발표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새로 신설된 교육원장에 원산스님(통도사 전 강주) 포교원장에 정락스님(상림포교사)을 내정하고 지난 24일 열린 조계종회에서 선출했다. 또한 월주스님과 함께 총무원 집행부를 이끌

어갈 소임자로는 총무부장에 범하스님(통도사 박물관장)이 기획실장에 지명스님(청계사 주지) 재무부장에 원우스님(범어사 전 총무) 문화사회부장에 시현스님(개혁회의 사회부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
그리고 중앙종회의 의회를 받도록 돼 있는 호법부장은

불교석학 버스웰 박사에 듣는다 7면
대하 소설속에 나타난 불교 13면

목어
"기호는 X번 00스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뽑던 11월 21일. 투표현장인 조계사 대웅전 입구에서 한 스님이 전단을 돌리며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했다.
그날 조계사 경내에는 선거 열기가 가득했다.
"돈 많이 쓰고 스님들 사이에 곧 생기고, 성직자들이 여

관방에서 그게 뭐야" "호텔이 비수기였는데 조계사 근처의 여관·호텔에 방이 모자랐더군."
"두번 할일이 못됩니다."
"추대로 모셔야 여법하지, 선거 관판껏 돌리며, 이런 세속 선거와 같잖아. 이런 선거는 아무리 민주화됐다고 해도 수행종포와는 안맞아."
"가장 민주적인 불교교유의 산중공사·대중공사 정풍은 어디로 가고 세속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선거 결과가 상당했음텐데,

조계사 앞 뜰에서

"식사공양을 네번이나 받았지만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해."
"선거인단도 아닌데 식사대접을 어느쪽에서 받았나."
"양쪽에서 똑같이 받았지."
"선거 결과가 상당했음텐데,

그게다 누구 돈입니까."
부표를 한 스님, 선거운동에 나선 스님, 궁중에서 조계사에 나온 사부대중은 이번 선거에 대해 이런 말들을 주고 받았다.
60~70여 종회의원이 선출하던 총무원장을 훨씬 많은 대중이 뜻을 모아 뽑았는데, 이처럼 한결같은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계사 앞 뜰에서 주위 들은 이런 설날새가 모두 호사가들의 입방아 엮으면 좋겠는데...

21세기의 시각 —
듀폰의 눈은 깊고 넓습니다.

200여 년 듀폰의 역사가 바로 첨단 기술의 역사입니다.
1802년 시작된 듀폰 200여 년의 기업 역사에는 혁신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1903년 세계 최초로 민간 연구소 설립.
1938년 공의 섬유 나일론 개발 등.
현재 22개국 70여 개 연구소를 통해 기초 생명과학에서 섬유, 화학, 농업, 전자, 에너지,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의 역사를 만들어 온 듀폰은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종합 화학회사로서 그 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듀폰은 건강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든지 안전, 환경 및 윤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여, 오늘날도 이를 기업 정신으로 이어받아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1,800여 종의 우수한 산업을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듀폰은 고객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남다른 파르너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고객 최고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듀폰은 이런 및 동산 단지의 공장을 통해 국내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보다 좋은 제품을 추구하는 듀폰 — 21세기의 시각으로 세계를 만들어가는 듀폰의 눈은 깊고 넓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과학적으로 —
듀폰의 21세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듀폰
☎ 135-08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0번지 서해인빌딩 4·5층